



기본소득은 바람에 실려 퍼져 간다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스케치

/ 오준호 논픽션 작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

독일 브레멘 시의원 가브리엘 슈미트Gabriele Schmidt와 전체 세션 사이의 쉬는 시간에 로비에서 처음 만났다. 슈미트는 좌파당Die Linke 기본소득위원회 대변인이기도 하다. 인사를 나누다가 슈미트는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의 이름을 딴 유명한 동화에 대해 말했다.

“브레멘 음악대 이야기 아세요?”

“그럼요. 개, 고양이, 수탉, 당나귀가 악대가 되려고 브레멘에 가는 이야기 아닌가요?”

“브레멘 음악대 이야기가 기본소득을 의미한답니다.”

“네?”

동물들은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자 주인에게 학대 당한다. 견디다 못한 동물들은 자유로운 브레멘에 가서 악대가 되려고 길을 떠난다. 캄캄한 밤에 불 켜진 집을 발견하여 다가가니, 도둑들이 약탈한 음식으로 진수성찬을 차려 놓고 있었다. 개가 멍멍, 고양이가 그르르, 수탉이 꼬끼오, 당나귀가 히힃히힃 울어, 도둑들은 혼비백산 도망가고 진수성찬은 동물들 차지가 된다. 동물들은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브레멘 음악대가 되어 여생을 즐긴다.

슈미트의 말대로, 이 동화는 기본소득 이야기였던 것이다! 도둑들이 약탈한 음식이 동물들이 노동으로 일궈 낸 산물인 것처럼, 이 세상의 부는 모든 사람의 공동 노동의 산물이다. 그 부를 기본소득으로 받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인생을 즐기자.



노동당 울산시당이 주관한 ‘노동자에게 희생 전가하는 조선산업 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에 함께 하고 있는 가브리엘 슈미트 독일 브레멘 시의원 (사진 제공: 노동당 울산시당)

가브리엘 슈미트는 대회 둘째 날 한국의 노동당과 독일 좌파당이 공동 개최하는 “사회적·생태적 전환을 위한 기본소득 모델” 세션에서 발표했고, 대회가 끝난 후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울산을 방문해 노동당 울산시당과 함께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서강대에서 열렸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BIEN))가 2년마다 여는 대회이며, 아시아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사회적·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이었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미국, 브라질, 스위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한국 등 20여 개 국가에서 참가했으며, 100여 명의 발표자를 포함한 연인원은 1천여 명 정도였다.

이번에 서울을 찾은 주요 발표자로는 비엔BIEN 창립 멤버이자 기본소득운동의 핵심 이론가인 필립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벨기에 루뱅대 교수), 브라질 시민기본소득법 제정에 큰 역할을 한 브라질 전 상원의원 에두아르도 수플리시Eduardo Matarazzo Suplicy, 핀란드 좌파 연합 창립 멤버이자 경제학 교수인 얀 오토 안데르손Jan Otto Anderson, 인도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그 결과를 책으로 낸 사라트 다발라Sarith Davala, 독일 좌파당 공동대표인 독일 연방의원 카티아 키피נגKatja Kipping 등이 있다. 키피핑은 남편, 어린 딸과 함께 방한했고, 딸은 엄마가 단상에서 발표하는 동안 대회장 한쪽에 마련된 놀이방에서 한국 아이들과 즐겁게 놀았다.

대회 사흘 동안 오전에는 전체 세션plenary session이 서강대 다산관 1층 강연장에서 총 여섯 차례 열렸고, 오후에는 32개의 개별 세션과 2개의 워크숍이 여러 강의실에 나뉘어 진행되었다. 전체 세션에서는 전문 통역사에 의한 동시통역과 수화통역이 지원되었다. 개별 세션에는 30여 명의 자원활동가들이 배정되어 행사 진행과 통역을 보조했다. 전체 세션과 달리 통역이 제한적으로만 지원되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기도 했다.

새삼스럽지만,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은 시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일정한 액수의 생활비다. 기본소득의 철학적 정당화에 앞장서 온 판 파레이스에 의하면,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지급한다. 가구를 단위로 하지 않는다. 둘째, 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제공된다. 자산이나 소득의 유무 확인을 비롯한 일체의 자격 심사가 없다. 셋째, 기본소득은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을 받는 대가로 일을 해야 하거나 구직 의사를 확인시켜 줄 필요가 없다.

판 파레이스는 큰 키와 흰 수염으로도 눈에 띄지만, 각국의 참가자들이 대회 내내 그를 둘러싸고 무언가 토론하는 것을 보아도 그가



비엔의 중심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한국에서 최근 번역 출간된 그의 책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후마니타스, 2016)을 들고 그에게 서명을 부탁하는 한국인 참가자, 자원활동가들의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다. 파레이스가 서명과 함께 써 준 글귀는 독특한 필체 때문에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후문이 있다.

#4

대회를 앞두고 대회 준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스토리펀딩’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제안서를 만들어 펀딩 담당자에게 보냈더니 흔쾌히 해 보자는 대답이 왔다.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김종철 녹색평론 대표, 필자 이렇게 세 사람이 한 편씩 기본소득에 관한 글을 썼다. 2주가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약 10만 명이 글을 읽고 펀딩에 동참해 주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이전보다 높아졌음을 실감했다.

더 놀라운 것은 언론과 정치인들의 반응이었다. 그동안 기본소득을 ‘술자리 과할 때 남은 찌개’처럼 무시해 온 주류 언론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다투어 기획 기사를 냈고 기본소득 이론가와 활동가를 잇달아 인터뷰했다. 노동당과 녹색당이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때 눈길도 주지 않았던 거대 정당들도 태도를 바꾸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어민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화한을 보내고 직접 대회에 와서 “기본소득이 불평등과 빈곤을 해결할 실마리”라며 축사를 한 것은 상전벽해라고 할 만한 사건이었다. 이제 기본소득을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는 있어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5

2016년 6월 5일,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있었다. 알다시피 이 국민투표에서 ‘찬성 23%’로 기본소득 도입이 부결되었다. 하지만 스위스에서 온 기본소득 활동가 체 바그너 Che Wagner는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보고」에서, “우리는 이것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여론조사를 할 때만 해도 찬성이 9~10% 정도였는데, 찬성이 4명 가운데 1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젊은 유권자(18세~29세)는 36%가 찬성했습니다. 스위스 기본소득운동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 반대표를 던진 사람 가운데 63%가 기본소득을 앞으로 계속 논의하자는 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찬성 투표자 가운데는 83%가 그렇게 응답하였습니다. 이번 투표는 더 깊은 논의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스위스 국민투표가 세계 기본소득운동에 큰 영감과 도약의 계기를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참가자들은 바그너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대회 첫 날 전체 세션 기조 발제자로 나선 필립 판 파레이스

#6

“어째서 기본소득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예전보다 절박한 문제가 되었을까요?”

대회 첫 전체 세션 기조 발제자로 나온 필립 판 파레이스는 청중에게 이처럼 질문했다. 알파고 때문인가?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아가기 때문인가? 기술 발전에 따른 구조적 실업에 대한 우려는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믿음이 우려를 덮어 버렸다. 오늘날 달라진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사람들이 점점 더 경제성장이 계속되리라는 믿음에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지표상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이뤄지지 않고, 프레카리아트precariat가 늘며, 성장 그 자체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

어졌다.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배경이다.

또 있다. 점증하는 우파 포퓰리즘의 위협이다. 힘들어진 삶이 이주자 때문이라며 이주자를 비난함으로써 지지를 모으는 선동가들이 늘고 있다.

“새로운 희망의 유토피아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그러한 경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프레이스는 강조한다.

#7

기본소득이 단지 몽상가의 희망일 뿐이라고 누군가 비웃는다면, 인도 기본소득 실험 보고는 이를 반박하는 실증적인 자료다. 유네스코와 인도의 자영업여성연합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SEWA)은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 주의 9개 마을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본소득 지급 실험을 했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빈곤선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지급되었다.

기본소득이 지급되자 농촌 가구의 식량 상태와 건강 상태가 호전되었으며, 사람들이 부채의 악순환에서 풀려났으며, 불안정한 임금노동에 종사하던 사람이 자영 농민으로 변신했다. 가정에서 여성과 아이들의 발언권이 강해졌으며,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양식장을 만드는 등 공동 활동이 활발해졌다. 이 실험 결과를 연구한 기본소득인도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사라트 다발라는 명쾌하게 말했다.

“기본소득의 해방적인 가치는 금전적 가치보다 훨씬 큼니다.”



전체 세션에서 발표 중인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8

전체 세션 가운데 유일한 한국어 발표는 강남훈 한신대 교수(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의 「인공지능과 보편 기본소득의 권리」였다. 강 교수의 발표 요지는 이런 것이다. ‘인공지능이 생산하는 부는 데이터 제공자, 알고리즘 제공자(플랫폼 제공자)의 협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데이터 제공자인 우리 모두는 생산된 부에 관한 N분의 1의 권리, 즉 기본소득의 권리를 지닌다.’ 이 발표에 대해 많은 외국인 참가자들도 깊은 관심을 보였고 예리한 질문이 여럿 나왔다. 아래는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다.

질문: 교수님께서서는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공공이 이용하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데이터는 기업들이 사

적으로 사용하고 그 이익에 우리가 과세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대답 : 물론 집단지성이 만들어낸 어떤 것은 세금을 거두기보다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모든 물건에 인공지능이 스며들게 되고 일일이 데이터 제공자의 기여를 계산하기 힘들므로 적절하게 과세하여 기본소득으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떤 것은 공공적으로 이용하게 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9

‘여성과 기본소득’ 세션 등 어떤 개별 세션은 자리가 없어서 참가자 일부가 서서 들어야 했을 만큼 인기였다. ‘여성과 기본소득’ 세션에서 일본에서 온 가오리 가타다, 신지 무라카미는 일본의 독신 엄마들이 노동시장과 복지에서 변두리로 내몰려 있는 실태를 분석하고, 이 여성들이 일과 양육, 그리고 자기 삶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한편 ‘기본소득을 이해시키는 방법’ 세션에서 독일의 기본소득 캠페인 ‘마인 그룬트아인콤포멘(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 운영 책임자 아미라 예히아Amira Jehia의 발표도 큰 관심을 모았다.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4만5천여 명에게서 모은 돈으로 지금까지 46명에게 1년간 매달 1천유로(약 120만원)를 지급했다.



강의실을 가득 메운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개별 세션을 진행 중인 마이클 허워드 (미국)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기도 했다. “베짱이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히아는 강조했다.

‘종교와 기본소득’ 세션은 기본소득이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종교의 지지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교와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영재 목사(성서와설교 연구원), 오동균 신부(성공회 대전주교좌교회)가, 불교의 가르침과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도흠 교수(한양대학교)가 발표했다. 이영재 목사는 히브리인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떠돌 때 십일조를 거두어 공동체를 운영하고 고아·과부·나그네의 생존을 보장한 일에서 기본소득의 정신을 발견한다. 오 신부는 태초의 인류가 에덴동산의 모든 것을 하느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으며 그 대신 하

느님이 창조한 생태 환경을 보존하는 일을 한 것에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찾는다. 이도흠 교수는 한국 불교가 귀족 불교로 변질되기 전 평등을 강조하며 사회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종교였음을 강조하며 불교 전통과 기본소득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그밖에도 ‘농민 기본소득’ 세션, ‘녹색과 기본소득’ 세션, ‘한국 경제의 양극화와 기본소득: 한국 원로경제학자 라운드테이블’ 세션, ‘인권과 기본소득’ 세션 등의 개별 세션이 치열한 토론 속에 진행되었다.

#10

사흘째 날 독일 연방의회 카티야 키핑 의원(좌파당 공동대표)이 ‘기본소득 : 민주주의의 일반화’라는 주제로 전체 세션에서 발표했다. 키핑 의원은 자신이 10여 년 전 주의회 의원으로 처음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언론 기자들로부터 “저 여자가 미쳤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해 청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나 그 기자들이 지금은 자신에게 전화해 기본소득과 관련한 인터뷰를 청한다고 한다. 한국이든 독일이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 나서는 사람은 처음에 언제나 조롱과 비난에 직면하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 아이디어는 불가피하고 당연하다’라고 모두가 입을 모은다.

키핑은 기본소득이 앞에서 말한 요소들, 개별적이고 보편적이고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에 덧붙여 “충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람들은 ‘충분한 기본소득’을 통해 먹고사는 일에 더해 여러 사회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충분한 기본소득을 받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시민권을 얻게 되고, 이 시민권에 의해 서로를 시민으로 완전히 인정하게 됩니다.”

최근 ‘브렉시트Brexist’ (영국의 EU 탈퇴) 사태와 관련해, 키핑은 유럽연합에 갖든 유럽 공동체의 이상과는 별개로 현재의 신자유주의적인 유럽, 즉 불평등을 강요하고 이주자에게 문을 닫아거는 유럽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핑은 유럽 차원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하나의 방안으로 각국의 노인연금을 통합하여 하나의 유럽노인연금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말했다.

#11

행사장 1층에는 문화연대 활동가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부스들이 설치되었다. 입구에서는 행사장에서만 쓸 수 있는 가상화폐(기본소득)를 지급했고, 로비에서는 그 가상화폐로 구입할 수 있는 음료수를 판매했다. 로비의 포토존에서 참가자들은 “기본소득이 내게 생긴다면 무엇을 할까?”를 작은 흑판에 써서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들은 로비 벽에 차례로 붙었다. 피부색과 국적과 문화와 신앙이 다른 참가



자들이 각자의 소망을 각자의 언어로 적었다.

#12

사흘째 날 총회에서 참가자들은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그 하나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를 2017년과 2018년 연이어 개최하는 것으로, 2017년은 포르투갈에서, 2018년은 핀란드에서 개최하기로 정했다. 다른 하나는 비엔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정의를 보완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기본소득이 “그 나라의 사회보장 서비스와 병행할 수 있고, 만약 사회보장 서비스가 기본소득으로 대체될 경우에 그것이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면 그러한 대체에 반대한다”라는 취지를 비엔의 기본소득 정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칼 와이더키스트 비엔 공동의장은 마치 기본소득을 기존의 복지제도와 맞바



꾸는 것인 양 선전하는 우파들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행사에는 기본소득의 ‘하이재킹(납치)’ 시도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여러 발표자부터 제기되었다. 기본소득 개념을 복지 축소의 의미로 왜곡하는 우파적 변형을 막자는 이야기다.

폐회식에서 이번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이자 집행위원장인 안효상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 한국에서 치러진 것은 그만큼 기본소득운동이 성장했음을 뜻한다”라며 참가자와 대회 자원활동가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참가자들은 에두아르도 수플리시의 선창으로 밥 딜런의 유명한

반전反戰 노래 〈블로잉 인 더 윈드Blowin' in the wind〉를 합창했다. 대회
마지막 날에 이 노래를 합창하는 것이 일종의 전통이라고 한다.

Yes how many times must a man look up
Before he can really see the sky
Yes how many ears must one man have
Before he can hear people cry ……
The answer my friend is blown'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n' in the wind

참 하늘을 볼 수 있으려면
몇 번이나 저 위를 보아야 할까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려면
귀가 몇 개이어야 할까 ……
친구여 그 대답은 바람에 실려 퍼져 간다네,
바람에 실려 퍼져 간다네

노랫말처럼, 기본소득은 바람에 실려 퍼져 가고 있다. **【조교】**